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63호 【루계 제24776호】 주체103(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덕천시 신덕탄광 지배인 박철원은 당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건설구상을 받들고 고산과수농장건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돌격대에 탄원한 만경대구역공업품종합상점 로동자 김영숙, 선교구역종합식당 로동자 림춘금은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모범을 보이였다.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펼치는데 기여할 일념안고 모란봉구역종합양복점 로동자 리옥심, 인민경제대학 김은주는 돌격대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후방물자를 보내주었다.

함흥시 동흥산구역종합식당 로동자 리혜영은 건설장을 찾아가 돌격대원들에게 지원품을 안겨주고 화선식선동사업도 활발히 벌려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으며 라선시 라선교류회사 부원 전향미도 애국의 마음안고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안주시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한미화는 618건설돌격대원들에게도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후대교육사업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김책시 김책고급중학교 교원 최광철은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청춘과원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따라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길에 한몸 다 바쳐갈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쿠웨이트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쥐 우말라또바, 쿠웨이트 투소니아회사 사장 쉐이크 하무드 알 쌀만 알 사바흐와 케이씨씨공학 및 청부회사 부총사장 무함마드 만쑤르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을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쿠웨이트 투소니아회사 사장, 케이씨씨공학 및 청부회사 부총사장이 23일과 24일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전투환경과 꼭같은 조건에서 훈련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이 되는 2015년을 해군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시였다.

일본의 지지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새로 정중히 모시자고 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인도네시아의 오케이존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남아프리카신문 《싼데이타임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으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17일과 18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정일령도자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된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중앙추모대회는 김정일령도자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진행되였다.

로씨야의 텔레비죤방송들과 인터네트통신들,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인디아의 PTI 통신,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지 뉴스 TV 방송,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딴마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아사히신붕》, 인디아의 PTI 통신,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지 뉴스 TV 방송,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 인도네시아신문 《꼼빠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존경하는 각하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세계평화와 정의의 수호자이신 김정일각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그이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네트토론회를 가지고 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리게 되는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일각하는 조선을 자주로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으로 만방에 빛내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십니다.

김정일각하께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철의 담력과 의지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무력간섭과 침략책동으로부터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한 온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신것은 인류정치사에 있어서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됩니다.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시며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하시여 각하께서는 조선의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였습니다.

이것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도 커다란 행운이 아닐수 없습니다.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고무와 용기를 안겨주고 있으며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확신케 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에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계속 지지성원할것이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한시도 멈추지 않을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우리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대한 향도자이신 각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투쟁을 고무해주시고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참가자일동

2014년 12월 17일 파키스탄 카라치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들이 안아온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

지난 3년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1만 4 3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현실에 도입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걸어온 지난 3년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중요전투장들마다에 큼직한 창조의 발자욱을 아로새긴 충정의 날과 달들로 엮어져있다.

3년간 3대혁명전위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현실에 도입한 기술혁신안은 무려 1만 4 300여건에 달한다.

지난 10여년간의 성과를 훨씬 릉가하는 이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스승, 친어버이가 되시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꽃피워갈 불타는 일념안고 지난 3년간을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왔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기어이 이 땅우에 꽃피우자!

최첨단돌파전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이런 비상한 각오를 안고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결사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로서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금속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의 심장이 최첨단돌파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과 비상한 창조력을 총폭발시키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전기로의 보수와 전극리용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우리 식의 강철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든 전세대 영웅들의 넋을 심장에 새기고 기술혁신전장에 뛰여들어 전국의 수명을 늘이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내화물의 질을 개선하는 등 수많은 기술혁신성과를 거두었다.

북방의 철정광생산기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도 기술혁신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바람세찬 눈보라길을 헤치시고 철산봉을 찾아오시여 기업소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헌신의 로고를 심장에 새기며 무산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회전식착정기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과 차수리분공장의 열처리로자동조종에서 나서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또한 로천분광산에서 정광생산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채굴 및 발파방법들과 운수기재들의 정상가동을 위한 많은 기술혁신안을 성공시켜 정광생산에 기여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은률광산, 재령광산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기술혁신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현실성있게 세우고 창조적재능과 열정을 발휘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전력생산공정과 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회리통식미분탄분리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그 효률을 높이고 보이라에서 증기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타빈과 급수뽐프의 날개제작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전력생산에 이바지하였다.

수풍발전소, 부전강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활동에 의하여 대형수력발전기들의 운영과 발전소언제의 력학적안정성이 합리적으로 보장되고 저수지물자원의 보호관리와 언제퇴적방지를 위한 새 기술이 적극 도입되였다.

강원도송배전부, 평안북도송배전부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전력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선심정으로 변전소들과 송배전설비, 송전선로들의 운영관리와 전력공급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갔다.

석탄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설비들을 새롭게 개조하고 합리적인 굴진, 채탄방법들을 련속 창안하여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8직동청년탄광 3대혁명소조원들은 벨트콘베아원격감시체계에 대한 연구 등 생산과 현대화실현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었으며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 3대혁명소조원들은 채굴구역의 3차원설계를 완성하고 발파가스중화제를 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어 석탄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북창, 득장, 덕천, 개천, 안주, 천내, 함남, 경원, 강동지구의 탄광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현실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열의를 높여주었다.

나라의 동맥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철도운수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두줄기 궤도우에 창조의 자욱을 찍어가고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평양기관차대, 신의주기관차대, 함흥철길대, 평양역, 함흥역, 룡성베아링공장을 비롯한 철도운수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철도의 정상운영과 현대화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힘을 넣어 지난 3년간 950여건의 기술혁신성과를 거두었다.

기계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거둔 성과도 대단하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폭발용접기술을 현실에 받아들여 수력발전기의 미끄럼메달생산공정을 확립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훨씬 높일수 있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소에서 수력타빈날개의 운영특성을 훨씬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3대혁명소조원들은 3차원프로필곡면부에 대한 폭발피복용접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전장에 용약 뛰여들어 희생성과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완전히 성공시켰다. 그리하여 종전에 비해 많은 불수강용착봉과 전력, 로력을 절약하고 타빈효률을 제고하였으며 수천kW의 전력을 더 생산하면서도 수명은 2배이상 연장할수 있게 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일반공작기계를 수자식으로 조종하고 조종용정류소자를 리용하여 공작기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유압식굴착기의 질제고와 대상설비생산에서 나서는 16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화학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생산과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특히 2.8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주체비날론, 주체비료, 화학제품생산을 늘이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농업생산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많은 기술혁신성과를 거두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람조류생물활성퇴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이였으며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지력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평안남도의 농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은 올해에 1만여정보의 논면적에 극미량살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창조적열정을 총폭발시켜 우리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극미량살초제의 우월성이 현실에서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연안군 개안농장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대적특성에 맞는 종자선택, 논벼 단지모에 의한 소식재배, 두벌농사에 알맞는 겹재배 등 능률적인 앞선 영농방법들과 2배이상의 효과를 내는 새로운 시비방법들을 대대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 받아들이였다.

삼지연군 소백산농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로운 수화제에 의한 잡초제거기술을 완성하고 수천정보의 새땅을 찾을수 있게 하였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해주련결농기계공장, 황주군농기계작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장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구상화흑연주철에 의한 뜨락또르부속품생산을 다그치고 들춰갈이보습, 이동식소형벼탈곡기와 같은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제작하고 개조하기 위한 전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건설건재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상건설전투장마다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동구주택건설사업소, 상하수도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수도건설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수보보강법, 곡면콩크리트판을 리용한 지붕시공방법과 같은 앞선 건설공법들을 적극 연구하고 건설기공구들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첨단기술의 패권을 쥐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함흥모방직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창조정신으로 주요방직설비들과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사리원방직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롭게 연구하고 현장에 도입한 천의 귀조직형성기구는 유연창대직기의 정상가동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신의주방적기계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과학자들과 함께 어느 한 가공설비의 CNC화를 실현하였다.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대중과 함께 설비와 부속, 기료품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활동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식료일용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식료품과 화장품의 질을 높이고 설비와 생산공정들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에서 실적을 올려 인민소비품생산에 이바지하였다.

수산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고기배와 어구생산, 물고기가공에서 나서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김책수산사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적은 연유를 가지고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만능조리개그물을 설계하고 랭동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투에서 기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통천수산사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진공뽐프에 의한 물고기부림장치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여 어로공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운전수산사업소 3대혁명소조원들도 바스레기인공알받이기술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림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계톱과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통나무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전자공업부문, 보건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숭고한 자각과 높은 실력, 비상한 창조열의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3년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각지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전례없이 강화함으로써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불타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기술혁신전투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3대혁명전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모든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는 최첨단돌파전의 전초병이 될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벅찬 투쟁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해나가야 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채인철 한영철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장

사상의 위력, 천만군민의 정신력으로 승리를 떨쳐온 뜻깊은 한해

5대교양을 틀어쥐고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신 불멸의 령도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이끄시여

참으로 가슴벅찬 날과 달들이 이 땅에 장엄히 흘러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온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2014년!

지심깊이에서 끓던 용암이 활화산으로 터져오르듯 미처 가늠할새없이 련속적으로 일어난 그 모든 변혁과 기적들, 어디서나 흥하는 소식들로 강산이 세차게 끓어번지던 올해의 격동적인 날과 달들을 뜨거운 추억속에 돌이켜볼수록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가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력사의 반동들의 비렬한 도전과 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음흉하고 횡포해진 2014년이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를 위대한 변혁과 승리로 빛나게 장식하였다.

하다면 올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그 모든 승리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대지에 억척같이 뿌리를 박은 기둥과도 같은 철의 진리가 천만의 심장을 쿵쿵 울려준다.

김정일애국주의!

바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이 위대한 정신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높뛰기만 한다면 력사의 광풍이 열백번 막아서도 최후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이 올해의 중요한 총화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대와 사회의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화해나갔기에 천만군민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지나온 주체103(2014)년을 자랑과 긍지에 넘쳐 돌이켜볼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

2014년!

이는 세월의 흐름속에 새겨지는 례사로운 력사의 년륜이 아니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서거 3돐이 되는 올해를 위대한 승리로 총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새로운 비약의 해로 되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확고한 의지였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1월 중순 어느날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해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을 잊을수가 없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번 연주회가 새해에 들어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특히 섬세한 예술적형상과 풍만한 울림으로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구가한 취주악 《조국찬가》를 잘 형상하였다. …

2014년을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올해 총진군의 출발진지에서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속에서는 이렇듯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시려는 철의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최후승리를 앞당겨올수 있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신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벌써 올해의 첫걸음부터 위대한 변혁과 승리를 내다보고있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온 한해 이어오신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은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 그 불패의 위력을 떨치기 위한 숭고한 목표에로 지향시켰다.

돌이켜보면 천만군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원수님께서 이 한해에만도 이어오신 길은 얼마이며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인지 모른다.

올해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시였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공장에 꾸려진 접착제직장, 타일생산직장, 수자식천연색분무인쇄실, 타일전시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새 제품개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횡포한 도전으로 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선군조선의 국력을 자랑하며 우리의 자원과 원료, 우리의 기술로 생산한 건재품들이 짱짱 쏟아져나오고있는 공장의 자랑찬 현실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정, 깨끗한 애국심의 결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는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릴수 있은 비결은 우리의 자원과 원료, 우리의 기술로 건재품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자원, 우리 기술로 이렇게 질좋은 건재들을 마음먹은대로 짱짱 생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습니다. 이 공장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명실공히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애국공장이며 볼수록 멋있고 쓸모있는 공장입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리마타일공장에 주신 그날의 과분한 평가는 조국과 인민에게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온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최상최대의 사랑이고 믿음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에서 이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맡은 초소들에서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갈 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난다는 철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이렇듯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가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간직되도록 하시기 위해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군대와 인민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천만의 심장마다에서 뿜어져나오는 애국의 힘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적인 령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있는 건설장들을 찾으시여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것은 세계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건설자들이 한장의 벽돌, 한삽의 몰탈에도 당의 의도와 애국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이야기,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그날에는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하신 열렬한 애국의 호소는 또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참으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시고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의 강행군길은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시려는 웅지를 안고 걸으신 거룩한 애국장정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로 하여 올해에도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찬 현실들이 장엄히 펼쳐지게 되였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숭고한 정신을 안고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산산이 짓부셔버리며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나가고있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찬 모습,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며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사랑의 금방석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훈련장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우리 체육인들에 의하여 체육강국의 위용이 남김없이 과시된 눈부신 성과들…

이뿐이 아니다. 참대는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고 백옥은 부서져도 자기의 흰빛을 잃지 않듯이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변하지 않는 조선의 싸우는 정신, 승리의 정신인 백두의 칼바람정신도,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로부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육아원, 애육원에로 이어진 건설의 대번영기에 이르기까지의 비약의 속력도 바로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다.

정녕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올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투쟁해나갈 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것을 철리로 새겨안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이 땅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2015년을 새로운 승리와 영광의 해로 더욱 빛내일것이다.

본사기자 정 순 학

위대성교양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지난 11월 14일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위대성교양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뜻깊은 올해만이 아니라 우리 혁명발전의 전력사적 행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인것이다.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우리식 현대화의 체현자로 될수 있은것은 바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위대성을 누구보다도 심장깊이 간직하고 실천적인 사업성과로 우리 당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자기의 깨끗한 량심과 진심을 깡그리 바쳤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고 빛내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국력이 강하고 인민의 참된 행복이 꽃펴나는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뜻깊은 올해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잊지 못하고 있다.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명제비를 돌아보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대군을 키우시여 당의 두리에 성벽처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정중히 모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늘 대원수님들을 뵈옵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으며 사업하고 생활하게 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면서도 주체적인 대과학기지의 자랑스러운 연혁을 더듬으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실때 이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뿐이 아닌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굽이친것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고귀한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청사에 길이 빛날 걸출한 업적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이였다.

새해의 첫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발자욱을 따르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기에 이 한해동안에만도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의 눈부신 현실도 그중의 하나인것이다.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올해의 진군길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현지지도단위들이 앞장선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뜻깊은 건군절에도 인민군군인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돌이켜보시였고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여서는 이곳 일군들과 교양원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깊이 새겨주시였으며 이해가 저물어가는 때에도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로 튼튼한 양어토대가 갖추어져있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온 한해 그 어디를 찾으시여도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사상사업에서 5대교양을 중요하게 틀어쥐고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서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하는것이 다름아닌 위대성교양사업이다.

백두산위인들과 우리 당의 위대성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불굴의 정신력의 근본원천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상적원동력이라고도 할수 있다.

혁명의 걸출한 수령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천만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혁명령도의 자욱을 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을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위대성으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수 있다는것을 뜻깊은 이해는 빛나는 현실로 증명해주었다.

본사기자 김 준 혁

혁명적도덕의리의 숭고한 귀감

주체103(2014)년 새해의 첫 혁명활동의 자욱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한해동안 도덕교양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며 실천적모범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사, 제자들인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을 더더욱 정화시켜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에도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이며 본분이라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고상한 량심과 의리를 새겨주는 도덕교양이 더욱 심화된것이 바로 올해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인간생활의 유일한 행동규범인 도덕의 최고정화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혁명적의리와 본분을 다하는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일찌기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몸소 메기공장건설구상을 펼쳐주시고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으며 힘있는 건설력량으로 공장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장군님,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이시려 이 공장을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킬 웅지를 안으시고 맵짠 추위도 아랑곳없이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들을 하나하나 취해주시였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 이해에 완공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찾으실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절절하신 음성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가시는 곳, 찾으시는 단위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깊이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말씀은 지금도 천만의 가슴마다에 심장의 박동처럼 힘차게 울리고있다. 그 거룩한 자욱을 따라 전군이 도덕의 강자로 사상정신적풍모를 더욱 훌륭하게 정화시켰고 순결한 도덕의리로 걷는 유훈관철의 길이야말로 참된 혁명의 길이라는 진리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하다면 년초부터 한해의 마지막까지 조국땅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로정에 맥박친것은 무엇이였던가.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만년재보로 하여 하루빨리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신조였다. 뜻깊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배우며 자라난 이 나라의 아들딸들 누구나가 12월의 피눈물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의리와 본분을 다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무엇을 부르며 어떻게 살며 투쟁할것을 바라는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자기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현대화의 최첨단수준을 돌파하고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 천지윤활유공장과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의 바다에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친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처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고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혁명적의리와 본분으로, 신념으로 간직할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으며 극복 못할 시련과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모두 희망찬 새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서 어버이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의리와 본분을 다해나가자.

채 히 성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적신념의 바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의 진군길을 줄기차게 달려왔다.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친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우리의 진군대오를 떠밀어준 강력한 원동력이였음을 절감할수록 올해 정월 마두산혁명전적지에서 있었던 잊지 못할 사연이 돌이켜진다.

전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나의 구호문헌앞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바치시였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윽토록 구호문헌의 한자한자를 여겨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고 강사와 일군들과 함께 뜻깊은 사진도 남기시였을뿐만아니라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도 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혁명투쟁에서 신념의 중요성을 명백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진리는 혁명전적지의 하늘가에 새겨졌다.

진정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버리지 말아야 할것은 신념이다.

목숨으로 사는 생은 한생이지만 신념으로 사는 생은 그 한계가 없다는것이 조선혁명사가 증명한 불멸의 진리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하고 오늘도 후대들의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되는것은 그들이 신념의 인간, 신념의 혁명가들이였기때문이리라.

마두산의 구호문헌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실 웅지를 굳히시였고 하여 신념교양은 우리 당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원수님들의 위대한 한생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그 언제나 크나큰 심장속에 안고계시였다.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우리 혁명의 명맥이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 백두산에서 나래친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은 이 땅우에 승리와 영광을 안아왔다.

준엄한 시대의 격동기마다 조선혁명의 전환적국면을 백두산에서 열어가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력사를 잊지 못하시여 백두산에 오르신 그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힘있게 천명하시였다.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우리는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 …

또 한분의 백두령장께서 아아한 산정에서 하신 말씀은 혁명적신념에 대한 력사적인 정의였다.

혁명적신념은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강의한 백두의 신념이며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필승의 신념이다. 백두의 칼바람은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투철한 신념을 벼려주고 백두산은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로 솟아 최후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신념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고 몸소 칼바람을 헤치고 백두산에 오르시여 신념교양의 중요성을 비상히 부각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는 올해의 자랑찬 승리들을 안아온 중요한 요인이였다.

백두의 칼바람, 혁명적사상공세의 바람은 천만군민의 신념을 벼려주고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주었다.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기 위하여 인민군대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붉은기를 날리며 백두산길을 앞장에서 헤쳤고 전국의 당책임일군들이 그 길을 이어갔으며 근로단체일군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그뒤를 따라섰다.

신념교양으로 혁명적사상공세의 포성을 더더욱 높여준것이 올해 우리 당사상사업이였다.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 때만이 아니라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 때일수록 더욱더 심화시켜나가야 하는것이 신념교양이다.

백두의 칼바람을 신념으로 안으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오직 곧바로 폭풍쳐나갈수 있다는것이 온 한해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고귀한 진리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조국강산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신천의 메아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지금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준엄한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비상히 자각시키는 사상감정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계급적자각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한시도 늦출수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다는 진리를 원한의 땅 신천은 시대와 력사앞에, 후대들앞에 더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현실은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혁명의 승패, 사회주의의 승패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이 땅에 백년, 천년의 력사가 흐른다해도 절대로 변할수 없는것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1월 신천땅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때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시였던 주체87(1998)년 11월의 잊지 못할 그날을 추억깊이 돌이켜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은 얼마나 뜨거우시였던가.

16년전 련이어 겹쳐드는 자연재해와 경제적난관,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적들의 침략전쟁소동으로 조국과 민족앞에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계급교양이 가지는 중요성을 그 어느때보다 깊이 통찰하시고 새롭게 꾸려진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다시금 새겨보시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 근엄한 빛이 비껴있었다.

미제승냥이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발장인 신천,

원쑤들과는 끝까지 최후결산을 하고야말겠다는 완강한 공격정신과 조국수호의 성스러운 싸움에서 계급의 칼날을 더욱 억세게, 더욱 서슬푸르게 벼려야 한다는 강인담대한 신념과 의지가 위대한 선군령장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서 빛발쳤다.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적관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와 웅도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이 새겨주신것은 언제 어느때나 반미교양, 계급교양에 힘을 넣음으로써 군인들이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게 하여야 한다는 계급적자각이였다.

어찌 그뿐이랴.

지난 11월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군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실 때에도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늘도 신천땅을 찾는 참관자들에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간곡한 당부가 커다란 진폭을 안고 메아리를 불러오고있다.

이 땅에 미제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가 있는 한, 증오의 피를 끓이며 복수를 만장약한 수호자들이 조국강토를 지켜가는 한 계급교양은 한시도 늦출수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다는 진리를 새겨주며.

미제와의 최후결산의 그날까지 신천의 메아리는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강성국가건설사에 길이 빛나라, 2014년이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해온 자랑찬 한해를 돌이켜보며(2)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은 이렇게 타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상징하는 조선속도, 올해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어에 담아 긍지높이 돌이켜본다.

지난 4월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군인건설자들이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들인 인민군군인들이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전투장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선봉투사가 되였다.

우리의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은 조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우뚝우뚝 일떠세웠다.

지난해 11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전투에 달라붙은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공사조건에서도 기적창조의 낮과 밤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5개월 남짓한 기간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끝내였다.

뿐만아니라 대동강반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일떠세웠으며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도 단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에서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각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이곳 주택지구건설에서 우리 당의 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원칙을 빛나게 실현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앞장서고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골조공사기간 건설장적으로 하루평균 200세대이상의 살림집골조를 완공하는 새로운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은 날을 따라 거세차게 타올라 뜻깊은 올해에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 중앙동물원 1단계개건공사가 빛나게 결속되였다.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산업시설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10월8일공장,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이 일떠서 우리 인민모두에게 더욱 휘황할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었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과 황해남도물길공사 등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도 세차게 타올라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빛나게 장식하는 뚜렷한 건설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뜻깊은 올해 온 나라에 활화산처럼 타번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은 이 땅우에 하루빨리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의지가 지펴올린 기적창조의 불길이며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우리의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안아온 비약의 불길인것이다.

본사기자 리병춘

금방석에 앉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높은 분명의 세계에서 당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최첨단돌파전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인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긍지와 존엄도 높이 올해의 날과 달을 돌이켜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일것이다.

정녕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남다른 사랑과 정속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금방석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폈다.

감격도 새로운 올해 1월 1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도교외의 한끝에 자리잡고있는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과학자들에게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소식은 온 나라를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였다. 그후 은정과학지구와 연풍호기슭, 대동강기슭에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한 사랑의 금방석과도 같은 건축물들이 일떠서기 시작하였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착공한지 불과 7개월만인 지난 10월 17일에, 그 다음날에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독특한 돛배형식으로 건설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준공되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완공되여 11월 중순부터 첫기 휴양생들을 받아들이였다.

진정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는 이런 나라가 바로 김일성민족이 사는 김정일조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이 빛나는 현실로 빛발친 주체103(2014)년은 명실공히 과학의 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의 긍지높은 해였다.

본사기자 려명희

세상에 부럼없어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입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고 후대중시, 미래사랑을 국가정치의 첫자리에 놓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로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에게 한생토록 잊지 못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새해 정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과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하시며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아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과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올해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에게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였다.

지난 2월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들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평안남도의 육아원과 애육원의 몸이 허약한 원아들을 대성산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양시킬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시여 아이들의 보양상태를 일일이 알아보시며 그들을 더 잘 돌봐주도록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의 본보기로 되는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현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선군시대의 걸작품으로 일떠선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로동당시대의 귀동자, 귀동녀들의 기쁨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보람찬 야영의 나날을 즐기며 친선의 뉴대를 도모할수 있게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 야영1각, 야영2각의 침실과 식당, 주방은 물론 편의시설들까지도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려지고 수족관, 조류사, 동물박제품진렬실들과 야외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시설들이 즐비하게 갖추어졌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대동강》상표를 척 붙인 급강하물미끄럼대까지 있는 야영소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과 친선의 정을 나누며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였다.

평양애육원 원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국제아동절을 뜻깊게 보낸데 이어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도 조선소년단창립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학원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찬바람 몰아치는 12월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였다.

수도의 한복판으로 달리는 콩우유차를 볼 때면 콩우유를 먹으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하시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 자각을 안고 생산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천만년 길이 길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구호를 새겨안은 모란봉악단은 화선식공연활동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이후 사상공세의 첫 포성으로 울려퍼진 모란봉악단공연은 붙는 불에 휘발유를 뿌리듯이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인민의 환희》, 《바다 만풍가》를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이 무대에 오른 공연은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그후에도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항일의 녀투사들이 입었던 군복차림을 한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이 삼지연군과 대홍단군, 혜산시에서 하루 2차씩 8일간에 걸쳐 진행한 순회공연은 량강도에 백두의 칼바람을 일으키며 인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모란봉악단공연을 본 량강도의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높이 울려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새겨안았으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갈 결의를 다지였다.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이 끝난 후 모란봉악단은 뜻깊은 태양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무대를 펼치였다.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반향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5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을 축하하는 모란봉악단의 《세상에 부럼없어라!》 공연이 진행되였다.

5월에 모란봉악단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을 진행하여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올해에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은 그야말로 당사상전선의 진두에서 울려가는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였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매번 새롭고 특색있는 작품들을 내놓아 천만군민에게 당정책을 속속들이 심어주는 기다려지는 공연으로 되였다.

지난 9월에 진행된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는 그 대표적인 공연이다.

온 한해 시대를 격동시킨 모란봉악단공연을 보면서 천만군민은 새 세기의 멋쟁이악단을 꾸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혁명의 노래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본사기자 차수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불을 지핀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

행복의 새 요람에 보금자리를 편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육자들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시) 우리의 최고사령관 백두산에 서계신다

박 현 철

백두산의 주인을 맞이한 환호성인가
구름우에 치솟은 산상의 메부리에
천군만마인양 기세차게 내닫는
눈보라 눈보라
백두산의 눈보라

밀림이 파도친다
천하가 눈부시다
광야를 달리는 폭풍을 호흡하시며
백두산정에 거연히 오르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련련히 뻗어간 백두대산줄기도
그이를 받들어 키를 솟구는가
아득히 펼쳐진 천리수해는
백두령장 우러러 정렬한 총검의 대오런듯

약동하는 젊음으로
이 나라 삼천리를 품안으신분
번쩍이는 예지의 그 안광으로
저 멀리 우주의 한끝까지
조선의 영광을 떨쳐가시는
또 한분 백두가 높이 모신 천출명장

강토를 굽어보시는
령장의 그 모습은
혈전만리 항일의 전장에
백두산호랑이의 뢰성을 터치시던
만고절세의 영웅 김대장 모습

눈보라에 날리는 옷자락은
선군혁명전장에
승리의 기치인양 나붓기던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야전복자락인듯

피어린 혁명의 준령을 넘어
선군의 붉은기를 휘날려온
총대의 력사를 안아보시는 그이
산정에 고동치는
대원수님들의 심장의 박동 들으시며
대를 이어 가야 할 승리의 돌격로우에
근엄한 시선을 얹으신다

딛고 서신 백두산악아랜
불의 용암을 품고 솟은 전선고지들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강철의 근위사단들
멸적의 탄두를 추켜든 은빛로케트들과
최후결전의 항로에 기수를 쳐든 붉은 매들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옮기시는 거룩한 발걸음
쿵— 쿵—
백두가 태동한다
백두의 칼바람이 일어번진다

오, 백두령장 김정은장군의
신념이고 배짱이며
거세찬 숨결인 백두의 칼바람
이 땅에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리라
원쑤들에겐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리라

산정을 뒤흔드는
백두령장의 신념의 메아리여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도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대를 이어 승리의 전통을 떨치며
이 조선에 안아올 모든 영광도
오직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백두의 기상 줄기차게 뻗치여
이 나라 삼천리가 태동한다
드르릉—
한나산이 진동하고
남해가 뒤끓는다

오, 이는 김정은장군의 산
백두성산이 터치는
최후승리의 장쾌한 서곡
천하무적의 최고사령관
백두산에 거연히 서계신다!

《천하제일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이 영광 노래부르자》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천하제일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이 영광 노래부르자》가 28일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리원종 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황주군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시와 합창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의 위업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특출한 령도실력을 지니시고 주체의 군건설위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시여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포악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만을 아로새겨온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찬 행로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기상을 보여주는 노래련곡 《비행사의 노래》,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민요련곡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다 만풍가》, 《분조농사 꽃이 피네》를 비롯한 노래들은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헌신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의지를 잘 형상하였다.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모셔갈 천만군민의 절절한 념원을 담은 노래련곡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남성독창 《우리 원수님》, 녀성독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맹세를 담은 합창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공연은 끝났다.

【황주발 조선중앙통신】

시대가 바라고 인민이 사랑하는 어머니당일군의 전형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에 대한 당일군들의 반향

멸사복무정신을 삶의 좌우명으로!

기사를 통해 받은 흥분을 그 어떤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당일군들이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멸사복무정신이야말로 얼마나 숭고하고 값높은것인가를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평범한 로동자인 송미의 또 한명의 의사, 아버지, 어머니가 되여 그에게 8년세월 아낌없이 기울인 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의 뜨거운 지성과 헌신적인 노력,

그 모든것이 다 가슴을 치지만 송미를 중앙병원에 올려보내던 때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 마음에 세찬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며 떠나지 않고있다.

딸이 얼굴에 입은 화상이 너무도 험악하여 친아버지조차 치료할 가망이 도저히 없는것으로 여기였지만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크나큰 신심을 주며 중앙병원으로 송미를 떠민 리춘일동무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리춘일동무는 의사가 아니였으며 의술도 몰랐다. 다만 근로인민대중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평범한 로동자가정의 딸인 림송미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하며 그가 기어이 불행을 가시고 자기 얼굴을 되찾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멸사복무의 정신이 있었을뿐이였다.

그런 일을 위해서 공장종업원들앞에서 당조직을 대표하는 일군인 자신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던것이다.

자기의 헌신적인 실천을 통하여 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 인민을 대하고 사랑할 때 이 땅의 당일군들이 어떤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종업원들에 대한 그의 멸사복무정신에 진정 머리가 숙어지고 정신이 번쩍 든다.

솔직히 말하여 지금까지 당책임일군으로서 멸사복무정신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여왔지만 그것을 당사업실천에 구현하는데서 리춘일동무처럼 그렇게 열렬하고 그렇게 절대적이지 못하였다.

최근에 우리는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청년들을 따뜻이 이끌어주어 그들이 청년돌격대를 뭇고 석탄증산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속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떼도록 하였다.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탄광들에서 일하다가 상한 종업원들에게 친부모, 친혈육의 심정으로 새 의족과 의수를 마련해주었다. 덕천탄부오리공장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탄부들에게 많은 오리고기도 공급하였다.

그러나 기사를 읽고보니 해놓은 일에 절대로 만족할수 없으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는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당일군들이 리춘일동무의 고결한 풍모와 일본새를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심도있게 전개해나가겠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각 부서 일군들과 아래단위 당일군들이 매일매일 리춘일동무의 멸사복무정신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탄부들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도록 하겠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 창 길

당일군의 영예는 무엇으로 빛나는가

불행을 당한 처녀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주려 스스로 의사가 되고 간호원이 되여주었으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여준 리춘일초급당비서의 헌신과 고결한 인간미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식사지표를 직접 작성한 사실, 송미의 생일날 화장품을 마련해가지고 찾아간 사실도 그러하지만 한생토록 못 잊을 영광의 시각 자기 자리를 내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바로 옆에 제대군인강사를 세워 기념사진을 찍도록 한 사실은 더우기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그처럼 사심없이, 그처럼 열렬하게 종업원들을 사랑하게 된 기초에는 무엇이 놓여있는것인가.

당일군의 영예는 바로 당과 대중을 혈연의 정으로 맺어주는 보이지 않는 밑거름, 충실한 뿌리가 되는데 있다는 숭고한 자각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이라는 칭호보다 더 고귀하고 영예스러운 칭호는 없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거목을 키운다. 모든 당일군들이 리춘일초급당비서처럼 열렬한 헌신과 정으로 대중을 위하여 복무할 때 우리 당의 사랑의 해빛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이 스며들것이며 자그마한 마음속그늘도 깨끗이 가셔줄것이다. 이런 훌륭한 뿌리가 있어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가 더욱 굳건해지는것이다.

기사를 두번세번 곱씹어 읽을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고 목메여 흐느끼던 지난해 여름날의 격정이 다시금 되살아난다. 너무도 한일없이 너무도 분에 넘치는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다는 죄스러운 마음이 또다시 온몸을 휩쓴다.

마음속상처를 안고있는 청춘남녀를 안착시켜 결혼상을 차려주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여준, 당일군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평범한 포구마을녀성에게 그토록 분에 넘치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고도 깊으신 뜻이 다시금 심장을 쾅쾅 울려준다.

우리 당의 사랑을 천만의 심장속에 전달해주는 해살이 되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당일군들이다. 당일군의 인간미는 천성이기 전에 숭고한 자각이고 무한한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초급당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써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친필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더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당일군의 영예를 빛내여나가겠다.

금야군 가진로동자구 초급당비서 백 성 숙

마지막 한사람의 운명까지도

리춘일초급당비서에 대한 이야기는 공장종업원들의 운명을 책임진 당일군인 나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에게 있어서 림송미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기사를 읽고 또 읽을수록 이런 물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림송미는 그 공장의 하많은 종업원들중의 한사람일것이다. 그러나 리춘일초급당비서에게 있어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림송미라는 처녀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사람이였다.

무엇때문에? 그가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유능한 실험공이여서?

아니였다. 림송미는 근로인민대중이 하늘처럼 존대받는 이 땅에서 행복만을 누려야 할 로동자처녀이기에, 로동당의 품속에서는 단 한송이의 꽃도 그늘을 몰라야 하겠기에 리춘일초급당비서는 송미의 회복을 위해 그토록 지성을 기울인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종업원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질번 한 평범한 처녀가 8년세월 온 공장의 각별한 사랑과 특별대우속에 치료를 받아온 감동깊은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어머니라는 부름을 두고 새삼스럽게 생각해보게 하였다.

어머니에게는 귀한 자식 덜 귀한 자식이 따로 없다. 병든 자식일수록 더 마음을 쓰고 그의 마음속상처를 가셔주기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바로 어머니이다.

기사의 주인공처럼 자기 단위의 마지막 한사람의 운명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일군만이 어머니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는 참다운 당일군임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당비서동진 내 생일을 쇠주려고 수백리 먼길을 달려왔어.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처녀가 또 있을가!》

림송미의 가슴속에 울리던 이런 행복에 젖은 목소리가 우리 공장 마지막종업원의 마음속에서도 울릴수 있게 당일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종업원들 누구나 스스럼없이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참된 당일군, 우리 당이 바라는 진짜배기 당일군이 되겠다.

경성애자공장 초급당비서 방 두 진

밤길, 험한 길

설사 아버지는 딸을 포기한다고 해도 초급당비서인 그자신은 자기 종업원을 절대로 포기할수 없었다. 그는 송미네 집에서 나와 오불꼬불한 골짜기를 내리면서 내짚은 걸음마다에 힘을 돋구며 마음속으로 억척같이 웨쳤다. 《할수 있어! 할수 있구말구!》…

이것은 지난 22일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의 한 구절이다.

이 대목은 8년전의 그날 밤 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가 자신을 다잡으며 한 종업원처녀를 위해 걸은 험한 산길에 나의 마음을 세워보게 한다.

나는 과연 이런 길을 얼마나 걸었던가.

그래도 제딴에는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고충도 풀어주고 부모잃은 청년의 결혼상도 차려주기 위해 애썼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처럼 그런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걸은 밤길, 험한 길은 과연 얼마였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이 가슴을 쾅쾅 울려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높으신 뜻,

그이의 높으신 뜻대로 8년세월 한 종업원처녀를 위해 밤길, 험한 길을 주저없이 걸은 리춘일동무와 같은 이런 진실하고 열렬한 인간사랑을 지닌 어머니당일군들의 정신세계에 늘 나의 마음도 따라세우며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겠다.

당보에 실린 기사의 주인공처럼 인민을 위한 밤길, 험한 길을 더 많이 걷겠다.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 초급당비서 오 제 환

위원회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시당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치는 진정

남포수산사업소 온천분사업소 지배인 박성진동무

얼마전 남포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장을 찾았던 우리는 희한한 전자오락설비들을 마주하게 되였다.

야영생들이 야영기간에 즐겁게 생활할수 있도록 회관에 설치되는 여러대의 전자오락설비들은 볼수록 우리의 경탄을 자아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설비들을 한대한대 정히 다루며 하나하나의 조작과정을 세심히 관찰하는 한 일군의 모습이였다.

알고보니 이 많은 설비들을 기증한 남포수산사업소 온천분사업소 지배인 박성진동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알고보니 지금까지 박성진동무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친 지성은 이뿐이 아니였다.

뜻깊은 2월에 이미 분사업소의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박성진동무는 수산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자진하여 해결함으로써 수산사업소적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어느날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평양애육원과 육아원을 돌아보시며 원아들에게 친어버이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박성진동무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기업관리를 좀더 짜고들고 생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여서 남포시의 원아들에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닿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됩시다.》

종업원들은 지배인의 말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따로 마련된 10여t의 많은 수산물을 화물자동차에 싣고 박성진동무는 원아들을 찾아갔다.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량볼을 다독여주기도 하고 구석구석 돌아보며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다심히 보살피는 그의 진정에 보육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 대한 지원도 그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였다.

박성진동무는 출어일수를 늘이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산전투를 벌려 마련한 많은 영농자재를 온천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넘겨줌으로써 알곡증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발벗고나서는 그의 기질은 전국도대항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에도 발휘되였다.

당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는 체육경기대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진동무는 집에 장만해두었던 자금으로 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하여 선참으로 보내주었다.

올해에 2층짜리 생산건물을 새로 번듯하게 짓고 종업원들의 휴계실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세운것과 같은 큰일을 해제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할수 있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박성진동무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의 숨결에 호흡을 맞추고 당에서 관심하는 문제에 머리를 쓰고 진정을 바치는것은 이 나라 공민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어버이장군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경건히 우러르는 그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높뛴것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겠다는 충정의 일편단심이였다.

우리 조국이 강하고 날로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는것은 바로 이처럼 진실하고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지닌 인간들이 초석이 되고 뿌리가 되여 내 나라를 굳건히 받들기때문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교육자이며 과학자라는 자각안고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 교원, 연구사들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이 교육사업과 함께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학부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것과 함께 이룩된 연구성과를 제때에 교수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과학연구기관이며 대학교원은 교육자이면서 과학자로 되여야 합니다.》

력학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대학교원은 교육자인 동시에 과학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늘 명심하고 좋은 연구성과를 내놓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학부장 손남진, 부학부장 리준걸동무를 비롯한 학부의 일군들은 교원, 연구사들에게 연구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이 과정에 훌륭한 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교원 김영애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되여 발전소들이 완공된 후 침수지주변철길의 안전성담보를 위한 연구과제수행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집단은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와 지질학부 교원, 연구사들의 침수될 지역의 수위 및 지질상태평가자료에 기초하여 방대한 량의 력학계산으로 철길상태에 따르는 로반과 옹벽의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연구집단은 력학적안전성평가를 위한 해석프로그람들을 연구개발하고 콤퓨터모의실험을 거쳐 침수될 지역에서의 옹벽공사를 비롯한 여러 건설공사와 관련한 100여매에 달하는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과 평양철도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력학부 교원들과 함께 연구과제수행에서 한몫하였다.

연구과제가 완성됨으로써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계획보다 로력은 20%, 세멘트는 37%, 골재는 32%나 절약하면서 공사기일을 8개월이나 앞당길수 있게 되였다. 현재 건설공사는 95%계선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나간 강좌장 윤순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여러개의 발전소가 동시에 건설되는데 맞게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교원 한성호동무와 지혜를 합쳐 축류발전설비조립지도서를 완성하여 설비조립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되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달려나간 연구사들도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실장 안철호, 연구사들인 김남철, 리화수, 리학명, 박영철동무들은 양수풍차를 연구완성하여 축산기지건설에서 제기되는 물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수 있게 하였다. 이들이 연구완성한 양수풍차는 우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 3~4m/s의 바람만 불면 10m이상의 높이까지 시간당 2.5㎥이상의 물을 계속 퍼올릴수 있는것으로 하여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있다. 특히 이들이 연구완성한 양수풍차는 효률이 높고 구조가 간단하여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연구집단은 자기들이 연구제작한 다른 한대의 양수풍차로 수직높이는 17m정도로 근 200m나 떨어져있는 집짐승우리까지 물을 보내주기 위한 시험을 끝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여러 건재기지들에 달려나간 교원 조명진, 신학철동무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주었다.

또한 적지 않은 교원, 연구사들이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나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학부의 교원들은 나라의 체육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실장 김준석, 교원들인 김영성, 김준용, 조원남동무들은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 체육종목들에 해석 및 모의프로그람들과 합리적인 측정설비를 받아들여 체육선수들의 수행동작의 정확성과 안정성보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올해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선수들과 감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과학연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이룩된 성과를 교수에 제때에 받아들여 후대교육사업과 경제강국건설, 체육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후대들을 위하는 마음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제가 과외소조활동을 끝낸 2월16일학생소년궁전 소조원들과 함께 시내로 향한 다리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을 밝히며 다리가 환해지는것이였습니다. 가로등들이 다리우를 비쳐주고있었던것입니다.

새 가로등불빛이 환한 다리를 건느며 학생소년들은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덕천시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인 김만길동무를 비롯한 인민보안원들이였습니다.

사실 김만길동무를 비롯한 인민보안원들이 시안의 학생소년들을 위해 바친 진정은 이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시안의 한곳에 아이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번듯하게 꾸려주기도 하고 눈비 쏟아지는 궂은날이면 궁전에서 집으로 가는 아이들을 모두 자동차에 태워보내주기도 하는 그들입니다.

지금 학부형들과 시안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을 두고 인민의 보안원들이 정말 다르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일에 자기의 진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런 훌륭한 인민보안원들을 널리 소개해주십시오.

2월16일학생소년궁전 지도교원 신 향 미

인민소비품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계속 힘차게 전진

인민의 평가속에 높아가는 질경쟁열의

날로 흥성이는 평양제1백화점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 7월의 어느 일요일 찌는듯 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제2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장을 찾으신 력사의 그날을 우리 인민은 오늘도 눈물겹게 되새겨보고있다.

백화점의 1층으로부터 2층, 3층에 전시된 상품들을 다 돌아보시며 오랜 시간 경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신 우리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상품전시회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의 평가가 기본이 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의 평가가 기본이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이 유훈을 뼈에 새기고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인민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최근 몇해동안 평양제1백화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해마다 상품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올해 6월까지 8차에 걸쳐 진행한 상품전시회를 통하여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은 치렬한 질경쟁, 기술경쟁열풍속에 비약적인 발전을 안아왔으며 백화점매대들을 날이 갈수록 인민의 사랑받는 곳으로 전환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더 잘 받들려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충정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오늘의 질경쟁열풍을 안아온 중요한 요인이다.

평양제1백화점 매대들을 돌아보면 나라의 경공업발전모습을 다 가늠해볼수 있다. 드넓은 백화점의 매대들을 구석구석 다 돌아보자면 아마 반나절품은 실히 걸릴것이라는 손님들의 이야기는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이 즐겨찾는 상품들이 꽉 차넘치고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8차례의 상품전시회를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가장 인기를 끈것이 매대들에 끝간데없이 펼쳐진 수백종의 식료가공품들이다.

제1차 상품전시회때 상품경쟁에 참가하였던 공장, 기업소들은 많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시회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불씨를 심어주신 후 경쟁의 불길은 인민의 평가속에 날이 갈수록 거세차게 타올랐다. 한차례한차례 전시회가 심화될수록 야심만만하게 질경쟁마당에 뛰여드는 단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생산단위만 늘어난것이 아니다. 가장 특징적인것은 식료품의 질평가기준이 전시회때마다 계속 달라지고 비상히 높아진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제2차 상품전시회에서 높이 평가되였던 룡악산샘물공장, 강서약수공장, 선흥식료공장은 더 말할것도 없고 오늘은 수많은 도전자, 경쟁자들이 질경쟁에서 결코 앞자리를 양보할수 없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로 백화점의 매대를 꽉 채우고있다.

늘 현지에 나와 인민들이 어떤 품종의 식료품을 많이 찾는가, 식료품의 영양성분은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가 등에 대하여 봉사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수요도 부단히 연구하면서 즉시에 새 제품개발전투를 벌리며 포장도안도 기발하게 착상하여 자기의 얼굴을 뚜렷이 상징하는 식료품들을 내놓는 여기에서 보람을 찾고있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숨은 노력을 우리는 하나하나의 제품마다에서 력력히 읽을수 있다.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히 련관되여있다고 볼수 있는 식료품매대들에는 간장, 된장, 갖가지 먹는기름을 비롯한 기초식품으로부터 콩우유, 절임류, 물고기가공품, 당과류, 빵류, 청량음료 등 수백종의 식료품들이 각기 자기 단위의 명판을 크게 내걸고 자랑스럽게 꽉 차있어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의 마음을 한껏 기쁘게 해주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크게 소문을 내지 못하던 평양시의 구역, 군 지방산업공장들도 오늘은 질경쟁마당에 당당히 들어서 자기 자리를 확고히 차지했다. 그속에는 모란식료공장, 문수식료공장도 있다.

평양제1백화점의 매대들중에서 인기있는 곳은 화장품매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우리 인민들에게 더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늘 마음쓰시며 현대적인 공장으로 일떠세워주신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들에서 인민이 사랑하는 갖가지 화장품들이 쏟아져나와 이곳 화장품매대를 이채롭게 단장시켜주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질경쟁, 기술경쟁을 치렬하게 벌리고있는 투쟁모습을 여기서는 직접 볼수 없다. 하지만 백화점을 찾는 수많은 녀성들과 근로자들이 매대앞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떠날줄 몰라하는 광경은 인민의 요구, 인민의 평가를 모든 사색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경쟁속에서 키돋움하며 비약해가는 그들의 하루하루를 말없이 전해주고있다.

평양제1백화점의 3층매대들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갖가지 천과 편직물, 지은 옷과 신발, 가정용품들이 이채를 띠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속에 마련된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한 색갈이 다양한 갖가지 양말들이며 박천견직공장의 포근한 마안산담요도 인민이 사랑하는 소비품으로 날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만복의 씨앗을 풍성한 열매로 가꾸어가려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정이 있어 평양제1백화점으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인민의 평가속에 생산단위들간의 경쟁열의도 계속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첨단의 목표도 제힘으로

신의주법랑철기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신의주법랑철기공장에서 생산한 질좋은 법랑철기제품들이 호평을 받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현대적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들을 현대화한다고 하여 남의것을 쳐다보면서 많은 외화를 들여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려고만 하는 편향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공장기사장 리원동무를 만나 생산공정 현대화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인상깊게 들을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철저히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시사해주었다.

몇해전 당조직의 지도밑에 굴식소성로제작문제가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론의된적이 있었다.

종전의 소성로로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굴식소성로와 관련한 자료라고는 그 외형을 찍은 사진밖에 없었다.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사진을 주고받으며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이 사진자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자체로 현대적인 굴식소성로를 제작하겠는가. 대다수 일군들의 의견은 이러했다.

언제까지나 남을 쳐다보겠는가. 오직 우리의 힘과 기술로 굴식소성로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의회를 결속한 지배인 김응현동무는 그후 중앙의 과학연구단위들을 찾아 수없이 길을 걸었다. 그 과정은 지배인자신이 굴식소성로에 대한 과학기술자료들을 깊이 체득하는 나날이였다. 도안의 기계공장의 오랜 기능공도, 유능한 기술자도 만나보면서 굴식소성로제작과정에서 부닥칠수 있는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도들도 하나하나 찾아냈다.

지배인은 곧 소성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우리 힘으로 능히 할수 있다는 자력갱생정신을 만장약한 지배인의 돌격구령이 힘차게 울리였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망라된 돌격대가 무어졌고 첨단의 목표를 자체로 점령하기 위한 공격전이 벌어졌다.

굴식소성로를 제작하는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900℃의 고열속에서도 변형되지 않도록 수백개의 련결로라들의 재질과 가공정밀도를 보장하는것이였다.

련결로라 한 고리에서 1㎜의 편차가 생겨도 전체적으로 설계와 차이나게 되는데 그러면 기계파손에로 이어지게 되는것이였다.

해당 부문의 도움밑에 필요한 재질의 소재를 구해온 일군들은 가공을 맡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숨결을 같이하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효률적인 전기설비를 해결하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였고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설계도면작성과 설비부분품가공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이런 투쟁속에 넉달이 흘렀다. 드디여 공장에서는 초기에 타산했던것보다 훨씬 적은 투자를 하여 자체의 힘으로 굴식소성로를 끝내 제작해내고야말았다.

공장의 일군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련이어 소성로의 현대화투쟁에 달라붙었다. 현지에 달려온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이곳 기술자, 기능공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콤퓨터에 의한 굴식소성로의 속도, 온도조종체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첨단돌파전의 성과여부는 결국 우리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달려있습니다.》

기사장이 우리에게 힘주어 하는 말이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늘도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현대화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있다.

리영민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낳은 열매

북창군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올해에 북창군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식료가공공장, 버섯공장, 종이공장, 가정용품공장, 철제일용품공장 등 군안의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의 책임일군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색을 기울이였다.

주민들이 새벽단잠에 든 그 시간에도 일군들은 원료기지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 생산을 정상화의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외진 산골길로, 공장들로 끊임없이 오가며 온 한해를 하루와 같이 뛰고 또 뛰였다.

공장을 떠메고나갈 일군대렬을 기술위주의 실천가형일군들로 꾸리는 문제,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는 문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체계를 혁신하는 문제, 설비들을 개조하는 문제 등 현실이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는 일감들을 찾아내여 책임지고 풀어주었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원료, 자재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군원료기지들의 부침땅은 매우 척박하였다.

평균토심은 10㎝정도였다. 이런 조건에서 좋은 작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군의 일군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산비탈들에 위치한 원료기지로 올라 이곳 일군들, 종업원들에게 힘을 주고 알곡증산의 방도도 가르쳐주면서 적극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군안의 원료기지에서는 올해의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작황을 거두게 되였다.

군안의 공장들이 활성화된 또 하나의 요인은 수매사업을 잘하고있는데 있다.

군에서는 1주와 3주를 집중수매의 날로 정하고 모든 주민들이 한사람같이 수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주민들속에 들어가 해설선전사업을 잘하여 수매가 자기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떨쳐나서게 하였다.

주민들이 수매한 파지, 파수지 등이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 크게 한몫하고 군내인민생활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오늘도 북창군의 일군들은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만부하로 돌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다 바쳐가도록 생산자대중을 이끌어가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생산정상화의 비결

회령기초식품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에 찾아주시였던 회령기초식품공장은 인민생활에 절실한 대중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단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날이 어제런듯 머리속에 삼삼히 그려보고있다.

이곳 생산자들은 력사의 그날에 받아안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건물의 안팎을 더욱 환하게 일신시켰다.

장류와 먹는기름생산건물의 벽체가 산뜻한 타일로 장식되고 내부천정도 일신되였다.

책임기사 현승호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곡자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고 앞선 혁신안을 받아들여 기름작업반의 착유기가동률도 높은 수준에 끌어올렸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품상표의 선부호화를 비롯한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도 적지 않다.

평보로는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박동을 맞출수 없다.

이런 불같은 일념을 안고 이들은 많은 기초식품을 생산하여 시안의 주민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이것은 비단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만 이룩되는 결실이 아니다.

오늘도 공장구내의 콩창고에 들어서면 가득 쌓인 콩마대를 보시며 힘이 난다고, 이것이 바로 선군9경이라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음성이 금시라도 귀전에 울리는것만 같다.

공장에서 기초식품생산을 정상화해가는 또 하나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해마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량의 100%를 확보해놓고 혁신의 불길을 높여가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사소한 공백도 없이 결사관철할 일념을 안고 제품의 자동포장기와 보이라계통을 완비하여 질좋은 기초식품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어린 선군9경을 노래하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길을 이어가는 이들의 불같은 노력속에 공장에서 질좋은 기초식품생산량은 끊임없이 늘어만 갈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이런 현장기술학습은 할수록 좋다

문수식료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이 평양제1백화점, 아동백화점을 비롯한 상업봉사단위들에서 자기 얼굴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했다. 중앙공업공장들의 소문난 상품들과 어깨를 겨루는 콩사탕, 락화생사탕, 바삭과자, 강정 등 문수식료공장 상품들이 인민들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공장지배인 한철동무는 그 비결의 하나가 지난해말부터 새롭게 진행하고있는 현장기술학습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시기에는 책임일군들이나 몇몇 기술일군들이 현장기술학습에 강사로 출연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있었다고 한다. 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학습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일군들이 이와 같은 현장기술학습의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기로 결심한것은 지난해 12월에 있은 제7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에 처음 참가한 후부터였다고 한다.

앞선 단위들과 자기 단위의 상품들을 대비해보며 그들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경쟁력있는 새 제품개발을 다그칠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그것이 곧 결과에로 이어지는것은 아니였다. 새로 개발한 제품들을 생산에로 이행시키는데서 주인이 되여야 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이 응당한 수준으로 따라서지 못한다면 그것이 시제품이나 견본품으로만 남아있게 되는것을 피할수 없었다. 더우기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종전보다 훨씬 늘여야 하는 현실은 임의의 새 제품이 개발되여도 종업원들이 그것을 원만한 질적수준에서 만들어낼수 있는 다방면적인 기능을 한시바삐 갖출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여 현장기술학습의 형식과 내용을 완전히 달리하는 대담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였다.

공장일군들은 한두명의 기술일군이 아니라 생산자들을 직접 현장기술학습강사로 출연시키기로 하였다. 월별, 주별로 면밀히 세워진 학습계획에 따라 임의의 로동자를 지명하였으며 그가 직접 강의안을 작성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학습제목들에는 현시기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그 질을 최대로 보장할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세분화하여 반영하였다.

학습강사로 지명된 생산자들은 때로는 공장책임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의 방조를 받아가며 때로는 여러 대학들, 인민대학습당에까지 오가며 강의안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작성하기 위해 애썼다. 그것은 단순한 강의안작성과정이 아니였다. 이 계기를 통해 자기가 생산에 리용하는 원료의 특성과 배합비률, 그것이 제품의 질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하게 되였다.

이런 사전준비밑에 진행되는 현장기술학습의 실효는 대단했다. 평범한 생산자가 교원이 되여 다른 생산자들앞에서 제품을 직접 만들고 구체적인 설명까지 붙여가며 진행하는 강의는 그야말로 대번에 눈에 익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학습과정인 동시에 원리적인 실천과정이기도 했다.

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매번 진행되는 강의의 수준을 놓고 채점을 하고 그것을 월별로 종합하여 작업반별현장기술학습경쟁열풍을 일으켰다.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평가사업까지 조직하니 새로운 과학기술리론을 습득하고 그것을 생산활동에 적극 응용하려는 대중의 열의가 더한층 고조되게 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공장에서는 20여가지 제품들에 대한 기술갱신을 여러차례나 하였다. 그 대부분이 생산자들속에서 나온 혁신안들을 실천에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니 이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현장기술학습의 실효성을 론하기에는 충분하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오늘날의 생산은 생산자들의 지식이 제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질제고를 가리켜 생산물의 지식집약도를 최대한 높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에서 울려나오는 이 말은 시대의 전진에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일터의 오늘과 변화될 래일을 비추어주는 귀중한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스승으로 존대하고 혈육으로 위해주자

전쟁로병들과의 사업을 잘하고있는 문천시당위원회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며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전승세대가 있어 우리 세대가 있고 전승세대의 넋을 이어야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하기에 우리 당에서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 세대의 마땅한 도덕의리이며 선군혁명의 엄숙한 요구이기도 하다.

전쟁로병들과의 사업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한 문천시당위원회 사업은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사해주고있다.

전쟁로병들과의 사업에서 문천시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라고 볼수 있다. 하나는 전쟁로병들을 스승으로 존대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육의 정으로 위해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전승세대와 후세대와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제기하고 전쟁로병들과의 사업을 심화시킨것이다.

스승으로 내세우자

문천시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전승의 넋을 새 세대들에게 심어주며 전화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여생을 값높이 빛내이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시하였다.

몇해전 전쟁로병들과의 사업정형을 료해하던 시당책임비서 안세환동무는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그것은 이 사업이 많은 경우 로병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물질적우대에만 치우치고있는것이였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시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협의회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들을 하나로 합치니 이런 답이 나왔다.

전쟁로병들을 스승으로 내세우자!

이렇게 되여 전쟁로병들을 스승으로 내세워 그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는것을 우선시하는 원칙이 세워지게 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을 후대들앞에 스승으로 내세워 전승세대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잘 짜고들었다.

전형을 내세우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나간것이다.

문천동에서 로병들이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시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을 전형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전쟁로병들이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도 짜고들고 조건보장사업도 따라세웠다.

시문화회관의 무대에도 내세웠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순회공연도 진행하게 하였으며 수도 평양에서 열린 전쟁로병기동예술선동대경연에도 참가시켰다.

그들의 공연의 생활력은 실로 대단하였다.

단순히 예술소품공연이 아니라 실감있는 전승력사강의였다고 한 관중의 목소리는 결코 우연치 않았다.

그들의 공연을 본 시안의 많은 전쟁로병들도 전투실화선동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시당위원회를 찾아와 로병기동예술선동대활동에 참가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의 결의를 적극 지지해주고 그들에게도 전투실화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활무대를 펼쳐주었다.

이렇게 되여 문천동에서 타오른 불씨는 온 시에 타번지게 되였다.

그 나날에 집에서 여생을 보내던 한 전쟁로병이 직외강연강사가 되여 전국적인 강연경연에까지 출연하여 높은 평가를 받는 자랑도 떨치게 되였다.

전쟁로병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을 자각하고 후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 전화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인민군용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는데도 좋았다.

친혈육의 정을 바치자

시당위원회가 다음으로 중시한것은 전쟁로병들을 혈육의 정으로 돌보아주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는것이였다.

물론 지난 기간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사업은 앞에서도 언급되였지만 시당위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사업이였다.

하지만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한 소식에 접한 시당일군들은 자기들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일정한 성과를 놓고 만족해하던 그들이였다.

시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시당책임일군들로부터 시안의 모든 일군들이 전쟁로병세대들을 담당하고 혈육의 정으로 의무적인 사업으로부터 의리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자!

이것은 로병가정방문이나 명절봉사를 비롯한 도와주는 사업이 그 어떤 계기때에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사업으로 되게 하자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로병세대와 후세대와의 관계를 그 어떤 물질적인것을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라 정과 정으로 이어진 친혈육과 같은 관계로 만들자는것이였다.

시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시당책임일군들로부터 시안의 모든 일군들이 전쟁로병세대들을 담당하고 혈육의 정으로 보살피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명절, 기념일때는 물론 때없이 찾아가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정상적인 건강검진과 치료체계도 세워주었다.

일군들의 모범은 시안의 인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온 시에 전쟁로병들을 혈육의 정으로 돌보아주는 기풍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되였다.

시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과 개별적인 주민들속에서 전쟁로병들을 스스로 담당하여 도와주는 미풍이 꽃펴나게 되였다.

문천식료공장에서는 중요 명절, 계기때마다 종합식료품을 만들어 로병들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세운데 그치지 않고 자주 로병들의 가정을 찾아가 진정을 다 바치였으며 문천시국수집에서도 원료기지에서 자체로 생산한 원료로 로병들의 생일상도 차려주고 봉사활동도 성의껏 진행하여 호평을 받게 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을 잘하고있는 문천식료공장과 문천시국수집을 비롯한 모범적인 단위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이 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게 하였다.

지난 10월 1일, 국제로인의 날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을 통해서도 시당위원회가 전쟁로병들과의 사업에 얼마나 큰 품을 넣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날 시당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시안의 전쟁로병들과 함께 영웅문천고급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로병들이 예술공연도 보고 다채로운 유희오락경기에도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식사도 시키고 기념품도 안겨주어 기쁘게 해주었던것이다. 이것 역시 전쟁로병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준 중요한 정치사업이였다.

문천시당위원회의 이런 사업들은 온 시에 전쟁로병들을 스승으로 존대하고 혈육의 정으로 위해주는 기풍을 안아온 위력한 추동력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의도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쟁로병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고있는 문천시당위원회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철

수령송가, 조국찬가의 메아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것이다

총련 금강산가극단 명명 40돐 기념모임 진행

총련 금강산가극단 명명 40돐 기념모임이 25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철 금강산가극단 부단장, 김수홍 금강산가극단후원회 회장, 홍령월 금강산가극단 고문 그리고 가극단 단원들과 후원회 역원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또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과 일군들, 교원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성원들을 비롯한 작가, 예술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가극단의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가 수여되였다.

이어 금강산가극단 명명 40돐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과 피바다가극단에서 보내온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모임에서는 허종만의장이 축하말언을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총정과 일심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로 장식한 력사적인 올해를 자랑차게 마무리하는 벅찬 시기에 금강산가극단 명명 40돐 기념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금강산가극단이 걸어온 지난 40년을 되새겨볼수록 가극단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고 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은총을 대를 이어 받은것은 금강산가극단이 지닌 가장 큰 행운이라고 피력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금강산가극단 명명 40돐에 즈음하여 가극단에 새겨진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실 숭고한 구상을 안으시고 가극단이 평양에서 피바다가극단과 함께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시였다고 밝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금강산가극단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가극단을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민족예술단체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이어 김철 금강산가극단 부단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금강산가극단 명명 40돐을 맞으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스승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조선인예술단을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1974년 4월 14일 예술단의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러시고는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재일동포들에게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선물로 안겨줄수 있게 예술단이 가극을 배우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고 밝혔다.

잊지 못할 6월 27일 예술단이 준비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공연을 보아주시고 거듭 치하해주시면서 금강산가극단을 조직하도록 은정넘친 교시를 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해 8월 29일 주체의 해외교포가극단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9월 9일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첫막을 올리게 되였다고 밝혔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뜨거운 은정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금강산가극단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새 세대 단원들이 조국의 대학들과 전문기관에서 배울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주역으로 활약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친어버이사랑을 다 돌려주시였다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금강산가극단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주체의 해외민족예술단체로 이름 떨칠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토로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생명수로 하여 금강산가극단은 1974년이래 오늘까지 조국과 일본 각지, 남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의 공연을 통해 수령송가, 조국찬가의 노래를 울리며 영광의 40년력사를 새겨올수 있었다고 언명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금강산가극단의 유일한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예술창작과 공연조직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수령송가, 조국찬가의 메아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충정으로 보답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인민예술가인 금강산가극단 작곡가 정상진, 공훈배우 김명희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잊지 않고 불멸의 태양찬가, 조국찬가를 높이 울려가는 총련의 민족예술단체 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모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모임이 끝난 다음 축하연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파국을 부채질하는 고의적도발

온 한해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뛴 남조선괴뢰당국이 새해에도 반공화국적대의식을 고취하며 군사적도발에 계속 광분할 자세이다. 괴뢰국방부가 다음해초에 발행하는 《2014 국방백서》에 《북의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쪼아박으려 하는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패당은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과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대응한 기구소멸전투 등을 운운하며 저들의 대결망동을 정당화해나섰다.

이로써 리명박《정권》에 이은 현 괴뢰당국도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대결정책에 한사코 매여달릴 흉악한 기도를 낱낱이 드러냈다.

《2014 국방백서》로 말하면 현 괴뢰정권이 출현하여 처음으로 발행되는것이다. 여기에 우리를 《주적》으로 쪼아박는다는것은 현 괴뢰집권세력의 《대북정책》이 선행《정권》과 다름없는 극악한 대결정책, 북침전쟁정책이라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현 괴뢰당국이 집권후 2년이 되여오는 지금껏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을 외면하며 반공화국도발에 피눈이 되여 날뛰여온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파국에서 헤여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조성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쩍하면 북남사이의 《신뢰》니, 《협력》이니 하고 떠들어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화와 협력의 상대인 동족을 《주적》으로 선포하는 무분별한 놀음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괴뢰들이 우리를 《주적》으로 대한다는것자체가 저들의 변함없는 동족적대감과 대결야망을 드러낸것이며 말끝마다 운운해온 《신뢰》와 《협력》을 스스로 부정하는것이다.

괴뢰당국은 이번에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 《군사적긴장고조》를 《주적》표현명기의 구실로 들고나왔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위협》과 《긴장고조》에 대해 떠벌일 꼬물만 한 자격도 없다.

돌이켜보면 온 한해동안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우리를 엄중히 위협하고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도발적인 삐라살포와 《인권》모략소동에 기승을 부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다. 현 남조선집권자부터가 그 가벼운 입을 매일과 같이 나불거리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 정책과 로선을 악랄하게 시비중상하고 외세에 반공화국국제공조를 구걸질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올해초와 가을에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깨여진것도 괴뢰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을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에로 극구 내몰며 미국과 함께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를 엄중히 위협하였기때문이다.

이해의 마지막까지도 남조선괴뢰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유엔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도 그 용납못할 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도리여 우리를 걸고들며 《주적》표현명기를 정당화하려는것은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망동이다.

바로 거기에 우리와 끝까지 힘으로 대결하며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괴뢰보수패당의 흉악한 기도가 그대로 깔려있다.

남조선괴뢰당국이 《국방백서》에 《주적》표현을 쪼아박는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외워온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통일대박》이니 하는것들이 다름아닌 체제대결각본이며 북침전쟁선언이라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첨예한 북남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고의적인 도발로서 우리 겨레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주적》소동으로 각계의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지향과 통일의지를 말살하고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그것은 대결광신자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 반역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을 이룩할 온 겨레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다져줄뿐이다.

괴뢰들이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며 《주적》론을 내걸고 계속 대결과 전쟁의 길로 질주한다면 파멸의 운명밖에 차례질것이 없을것이다.

최철순

《조선 미국에 공동조사 제안》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자국 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놓고 우리를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20일과 2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측과 《쏘니 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싸이버공격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할것을 제안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에는 조선이 이번 사건이 자국과 련관이 없다는것을 립증할 방도가 있다고 밝혀져있다. 대변인은 미국이 공동조사제안마저 거부하고 조선을 걸고들면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리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정부가 영화회사에 대한 싸이버공격이 북조선의 범행이라고 단정한것과 관련하여 미국에 공동조사를 진행할것을 제안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정부의 견해에 대해 추상적이고 추리적인 주장만 늘어놓아가지고서는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적대감이 체질화된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려는 불순분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것이지만 보복하는 경우에도 영화관의 무고한 구경군들을 목표로 한 테로공격이 아니라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책임이 있는자들과 그 본거지에 대한 정정당당한 보복공격을 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여론을 내돌리며 비방하고있는데 대처하여 조선은 미국측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의 파르스통신, 타스님통신, 프레스TV방송, 인디아—아시아통신, 인디아의 지 뉴스TV방송, NDTV방송,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힌두》, 에짚트신문 《에짚션 가제트》, 영국의 로이터통신, BBC방송, 미국의 UPI통신, AP통신, 일본의 지지통신,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NHK방송도 《조선 싸이버공격에 대한 관여 부정》, 《조선 미국에 공동조사 제안》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보도하였다.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 립장 천명

벨라루씨대통령 알렉싼드르 루까쉔꼬가 16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벨라루씨는 그 어떤 위협책동도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인민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 누구든 힘의 립장에서 자기 나라와 대화하려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벨라루씨는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치적안정과 군사적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반테로투쟁에서의 국제적단합과 협력 호소

아랍추장국련방 외무상이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반테로투쟁에서 단합과 협력을 강화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성명은 무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테로행위를 배격하는 아랍추장국련방 정부의 립장을 밝히고 모든 나라들이 테로를 박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제127차 총회 진행

국제올림픽위원회 제127차 총회가 8일과 9일 모나꼬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올림픽운동의 장래를 위한 총적방향과 방도를 밝힌 40개 항목으로 구성된 《올림픽의정 2020》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총회에서는 또한 2017년에 진행될 국제올림픽위원회 제130차 총회장소로 뻬루의 리마가 선정되였다.

세계평화리사회 집행위원회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인디아의 고아주에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세계평화리사회 집행위원회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강압채택된 유엔《인권결의》의 부당성과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의 종식을 강력히 요구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낼데 대한 성명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조선전쟁도발 65년을 맞으며 세계평화애호력량이 미제의 야만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호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기 위한 활동계획이 토의되였다.

자연피해

— 말레이시아의 꺼란딴주와 빠항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 최근 큰물이 났다. 폭우에 의한 큰물로 24일현재 5만 8 000명이상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였으며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아쩨주와 서부자바주에서 최근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23일현재 7 300여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으며 3만 4 600여명이 긴급대피하였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한파가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설을 동반한 한파로 우타라크한드주에서만도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맵짠 바람이 우따르 쁘라데쉬주와 하리아나주 등을 휩쓸면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있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언제의 경사면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언제의 경사면에 처음으로 대규모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언제는 공업용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되였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려는 발기에 의해 언제의 경사면에 6 900여장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였다. 이것으로 일반가정 540세대에 필요한 전기를 얻을수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파업과 항의시위, 집회

— 벨지끄의 전국도처에서 15일 당국의 그릇된 긴축조치를 반대하는 파업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파업들에는 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당국이 취한 긴축조치로 자기들의 생존권이 심히 위협당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그러한 조치를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들로 학교와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 마쟈르의 부다뻬슈뜨에서 14일 당국의 부당한 긴축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약 2 5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취한 긴축조치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령락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 미국의 워싱톤에서 8일 당국의 부당한 무역협정체결시도를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이곳에서 당국의 주도하에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체결을 위한 회의가 소집되는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집회에는 많은 시민단체, 로조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협정체결문제를 놓고 비밀협상을 벌리는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그러한 협정이 시민들의 기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에서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반대하여 시위

오늘의 세계

미국의 끈질긴 제재소동, 반발하는 로씨야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소동이 도수를 넘고있다.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로씨야의 크림지역에 대한 상품, 기술 및 봉사수출을 금지할것이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별적인물들과 회사들에 제재를 가할것을 재무성에 지시하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회에서 《우크라이나자유지원법》이 통과되고 미집권자가 여기에 서명하였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대로씨야제재강화목적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이 나라를 대하는 로씨야의 립장을 변화시키는데 있다는 설명을 달고있다. 요컨대 모든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한것이라는것이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지 노리는것은 다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로씨야의 정권교체를 추구하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 정세분석가들도 찍어말하고있다. 즉 제재강화로 로씨야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려 사회적혼란을 일으키고 그를 리용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성시켜 정권교체바람을 몰아오려 한다는것이다. 다른 나라 정부들을 전복하는데서 미국이 흔히 쓰고있는 상투적인 수법을 놓고볼 때 일리가 있는 소리라고 할수 있다.

로씨야도 이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얼마전 로씨야외무성부상은 로미관계문제에 관한 국가회의 청문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자기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목적은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로골화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이에 대해 아닌보살하지만 모든것은 이러한 사태발전에로 몰아갈수 있는 환경마련이 미국의 우선적인 대외정책방향들중의 하나로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동맹가입과 자유무역협정체결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혼란이 조성되였다. 그후 이것은 크림의 로씨야련방에로의 가입과 동부지역의 도네쯔크주와 루간스크주가 각각 독립을 선포하는데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사이의 무장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날이 격화되였으며 서부와 동부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였다. 이 모든것은 미국이 뒤에서 조작한 《색갈혁명》의 《덕》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전부터 로씨야를 잠재적적수로 여기면서 좋지 않게 보아오던 미국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씌우면서 이 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압박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로씨야를 침략자, 내정간섭자로 몰아대면서 대대적인 여론공세를 벌렸다. 그런가하면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로씨야에 제재를 들이댔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의 입에서는 로씨야의 《위협》타령이 그칠줄 몰랐다. 미국의 책동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나라들에서는 반로씨야감정이 조성되였다.

미국의 속심은 딴데 있지 않았다. 로씨야를 고립약화시키고 제압하여 저들이 판을 치는 유럽을 만들자는것이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를 조작할 때부터 로씨야를 목표로 삼았다.

이미전에 미국의 한 평론가가 인터네트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복잡한 사태를 조성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이 나라를 유럽동맹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은 로씨야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계획이라고 한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번에 오바마가 수표한 법안에 분쟁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제공문제가 공공연히 포함되여있는것도 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불순한 목적을 노린 미국의 제재소동과 반로씨야감정조성놀음은 로씨야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대로씨야추가제재법을 또하나의 반로씨야경향의 표현으로, 절대로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락인하고 미국이 추가제재를 단행할 경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항상 로씨야에 근거없는 혐의를 들씌우고 새로운 제재로 위협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하여 로미사이에 심각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서로가 진흙탕싸움을 벌리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국가적리익을 수호하고 그 어떤 위협공갈에도 굴복하지 않을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로씨야대통령행정부 국내정책국 국장은 오늘날 자기 나라에 대한 제재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붕괴과정이 오래동안 계속될수 있지만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로씨야가 미국의 대로씨야정책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서리라는것은 명백하며 미국으로서는 로씨야를 어째보려고 하기보다는 허황한 세계제패야망을 버리는것이 옳바른 처사로 될것이라고 충고하고있다.

김수진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 확대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24일현재 에볼라비루스감염자수는 1만 9 497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수는 7 588명에 달하였다.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네가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고있다고 한다.

병의 전파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강점미군을 몰아내는것이 기본이다

필리핀에서 미군병사가 살인혐의로 기소되였다.

필리핀검찰은 미군병사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보석이 인정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펨버튼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군병사는 지난 10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한 혐의자이다.

26살 난 필리핀주민이 어느 한 위생실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였는데 그의 동행자가 바로 군사연습의 명분으로 필리핀에 기여들었던 펨버튼이였던것이다.

사건발생후 펨버튼은 《미군이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미군당국의 보호관리하에 있게 된다.》는 미국과 필리핀사이의 협정을 력대고 필리핀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이 나라 인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필리핀군기지로 이송되여 조사를 받고있었다.

이번에 펨버튼이 필리핀검찰에 공식 기소됨으로써 세계 가는 곳마다에서 살인과 강탈, 란동과 방종을 일삼던 또 한명의 미군병사, 한마리의 승냥이가 정의와 민심의 심판대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전문가들은 펨버튼의 유죄판결이 결정되는 경우 최고 40년형을 받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미군병사 펨버튼이 남의 나라에 기여들어 살인을 저지르고 기소된것은 천만번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 《조사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법시행당국과 계속 전면적으로 협력할것》이라느니, 《필리핀인의 사망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느니 뭐니 하고 그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분노한 필리핀인민들의 저주와 징벌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일개 미군병사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자체에만 있지 않다. 미군은 온갖 범죄의 온상, 불행의 화근으로서 강토에 미군을 들여놓으면 자기 인민을 지킬수 없는것은 물론 국권도 고수할수 없다는것을 깨닫는것이 중요하다.

필리핀에 대한 미군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보자.

19세기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필리핀인민의 투쟁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나라에 기여든 미국은 에스빠냐와 체결한 《빠리강화조약》을 통하여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강탈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이 정의의 항쟁에 떨쳐나서자 미제침략군은 필리핀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으며 모로족을 비롯한 산간오지의 소수민족들까지 닥치는대로 살륙하였다.

그때 미군살인귀 제임스 스미트란자가 병사들에게 《마음껏 죽이고 불사르라. 나에게는 포로가 필요없다.》라고 줴친 살인명령을 인류는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미군은 루쏜섬에서만도 섬주민의 5분의 1이 넘는 60여만명의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미국은 1905년에는 도꾜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우리 나라와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지배흥정관을 벌려놓고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갖은 회유와 기만, 위협공갈의 방법으로 필리핀에 《경제협정》, 《군사원조협정》, 《호상방위조약》 등 예속적인 불평등협정들을 강요하여 이 나라를 계속 저들의 지배하에 두었다.

1990년대초 필리핀인민의 반미감정이 증대되자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던 미국은 그후 이 나라에 대한 미군주둔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발악하였다.

9.11사건이후에는 《반테로전》의 간판을 들고 해외주둔 미군병력을 확대하면서 필리핀에 군사기지들을 새로 꾸렸거나 원래 있던 기지들을 되살렸다.

최근 미국은 《인도주의지원과 재해지원활동을 위한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필리핀국내에서의 합동훈련회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미군의 영구주둔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올해 4월에는 필리핀과 10년기한의 새 《방위협정》을 체결하였다. 필리핀에 대한 지배의 영구화와 주변대국견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린 미국의 교활한 술책의 결과물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이전 기지들을 다시 리용하거나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하려는데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느니, 미군이 리용하게 될 시설들과 비행장, 항구들은 의연 필리핀의 관할하에 있게 될것이라느니, 미군은 다만 합동훈련과 연습을 위해 순환배치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변명하였다. 그따위 소리에 넘어갈 나라는 없다.

교훈은 미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범죄가 뒤따른다는것이다.

일본과 남조선 등 미군주둔지역들에서의 과거사를 들춰보아도 그렇고 오늘의 필리핀의 현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2005년에도 미해병대원들이 이 나라 녀성에게 야만적인 성폭행범죄를 감행한적이 있다.

그러한 범죄의 행적을 가지고있는 미군이 이번에 필리핀에서 또다시 살인만행을 저지른것은 미군주둔이야말로 온갖 범죄와 불행을 낳는 악의 근원이라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준다.

미군의 범죄는 실수나 과실에 의한것도 아니며 개별적인 병사 한둘에 국한되는 현상도 아니다. 극단한 인간증오사상과 온갖 범죄가 만연하는 사회제도에서 태여나 피비린내나는 전장터에서 변태적인 심리에 물젖은 살인자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힘으로 정복하려는 지배주의에 현혹되고 당국의 비호두둔밑에 극도로 횡포해진 미군은 침략과 살륙, 파괴와 략탈을 떠나 존재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해외주둔 미군의 범죄는 나날이 증대되고있다.

이제 필리핀에서 미군범죄자에게 응당한 법적징벌을 가한다고 해도 미군주둔이 계속되는한 제2, 제3의 펨버튼은 끝없이 생겨날것이다.

국권을 지키고 인민을 지키는 길은 오직 미군을 자기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는데 있다.

본사기자 리철혁

ㄱ-41202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